



## 미 증시, 물가 둔화에도 침체 우려로 약세

### 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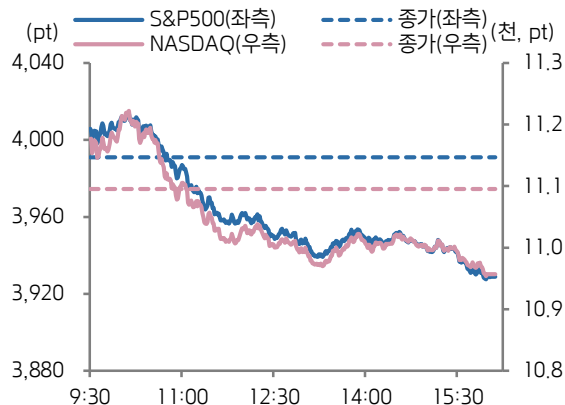
18일(수) 미국 증시는 미국 12월 생산자 물가 둔화 소식에도, 12월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감소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, 블라드 총재의 매파 발언 등으로 1%대 급락 마감(다우 -1.81%, S&P500 -1.56%, 나스닥 -1.24%).

미국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6.2%(예상 6.8%, 전월 7.3%) 증가하며 예상치 큰 폭으로 하회. 전월 대비로는 -0.5%(예상 -0.1%, 전월 0.2%)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최대폭 하락 기록. 근원 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5.5%(예상 5.6%, 전월 6.2%), 전월대비 0.1%(예상 0.1%, 전월 0.2%)로 발표. 에너지 부문이 -7.9%, 특히 가솔린이 전월대비 -13.4% 하락했고 식료품 역시 -1.2% 급락해 전반적인 물가 하락을 주도. 반면, 12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-1.1%(예상 0.9%, 전월 -1.0%)로 2개월 연속 감소세 기록. 13개 항목 중 10개에서 둔화되었으며, 서비스 부문인 외식 부문에서 전월 대비 -0.9% 감소하며 12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. 가구, 가전 부문에서 -2.0%, 휘발유 부문은 -4.6% 감소. 12월 산업생산 역시 전월대비 -0.7%(예상 -0.1%, 전월 -0.6%), 제조업 생산 전월대비 -1.3%(예상 -0.2%, 전월 -1.1%) 하락하며 부진.

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"금리는 최소 5% 이상을 유지하고 연준이 좀 더 타이트한 입장을 유지했으면 한다"고 언급. 경기에 대해서는 유럽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우려보다 침체 강도가 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. 다만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이나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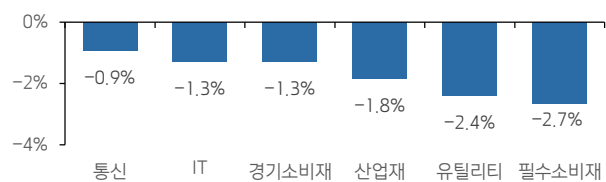
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통신(-0.9%), IT(-1.3%), 경기소비재(-1.3%) 업종의 낙폭이 가장 작았고, 필수소비재(-2.7%), 유틸리티(-2.4%), 산업재(-1.8%)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음. 어제 나스닥 상승을 주도했던 테슬라(-2.06%), 엔비디아(-1.84%) 약세 전환. 유나이티드 항공(-4.57%)은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양호한 4분기 실적을 발표, 또한 올해 첫 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보다 50% 급증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긍정적인 가이드언스를 제시했으나 주가는 약세. 모더나(3.32%)는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RSV 백신의 임상 시험에서 80%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보도로 개장전 7%다 급등했으나 지수 하락과 함께 낙폭 축소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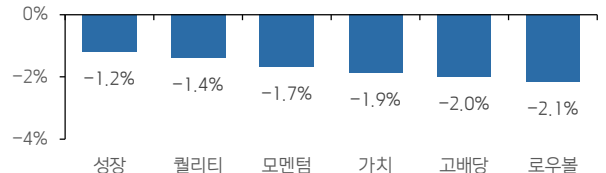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368.32	-0.47%	USD/KRW	1,237.61	-0.11%
코스피 200	311.91	-0.59%	달러 지수	102.40	+0.01%
코스닥	711.75	+0.29%	EUR/USD	1.08	-0.01%
코스닥 150	986.26	+0.31%	USD/CNH	6.77	-0.04%
S&P500	3,928.86	-1.56%	USD/JPY	128.88	-0.02%
NASDAQ	10,957.01	-1.24%	채권시장		
다우	33,296.96	-1.81%	국고채 3년	3.373	-10.8bp
VIX	20.34	+5.06%	국고채 10년	3.320	-12.2bp
러셀 2000	1,854.37	-1.59%	미국 국채 2년	4.083	-12.2bp
필라. 반도체	2,789.47	-0.64%	미국 국채 10년	3.370	-17.8bp
다우 운송	14,295.61	-0.43%	미국 국채 30년	3.538	-12.3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4,174.34	+0%	WTI	79.48	-0.87%
MSCI 전세계 지수	638.05	-0.02%	브렌트유	84.5	-1.65%
MSCI DM 지수	2,736.45	+0.02%	금	1907	-0.15%
MSCI EM 지수	1,027.38	-0.34%	은	23.65	-1.75%
MSCI 한국 ETF	61.32	-1.49%	구리	423.45	+0.27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

##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<b>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</b>	MSCI 한국 지수 ETF 는 1.49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0.68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57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236.2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<b>주요 체크 사항</b>	1. 미국 증시 급락에 따른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 악화 가능성 2. 차주 국내 연휴기간 돌입에 따른 관망심리 심화 여부 3. 미국 소비자표 부진이 국내 수출관련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

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지난 12 월 CPI(소비자물가)에 이어 12 월 PPI(생산자물가)가 6.2%(YoY, 컨센 6.8%)로 전월(7.3%)에 비해 둔화됐다는 점에서 재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, 올해 인플레이션은 계절적인 변수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하락 추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. 이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며, 경기 침체 문제와 중앙은행 긴축 문제가 그 감소분을 나눠가지면서 각자의 영향력을 확대 나갈 것임을 시사.

이런 맥락에서 전일 발표된 미국의 12 월 소매판매(-1.1%MoM, 컨센 -0.8%)과 산업생산(-0.7%MoM, 컨센 -0.1%)이 쇼크를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는 점도 수궁이 가는 부분. 또한 연준도 베이지북(경기판단보고서)를 통해 미국 경제는 향후 수개월 동안 성장세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경기 모멘텀 둔화를 우려했다는 점도 미 증시 하락을 부추겼던 것으로 판단. 물론 주식시장은 경제에 선행하기에, 경기 문제는 상당부분 주가에 반영했을 수 있지만, 아직 침체 강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경기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할 것으로 예상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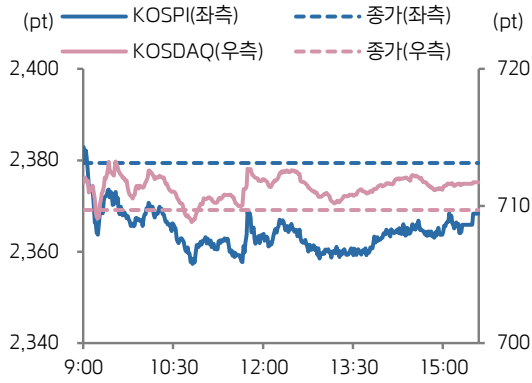
또한 여전히 연내 금리인하를 둘러싼 연준과 시장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증시 상방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임. 전일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2023 년 말까지 기준금리 상단이 5.5%(현재 4.5%) 정도는 돼야 할 것이며 2 월 FOMC 에서 50bp 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, CME Fed Watch 상 시장은 2 월 25bp 인상(확률 95%)에 베팅하고 있는 상황.

연말 금리 상단 역시 블라드 총재 포함 대부분 연준 인사들은 5%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으나, 시장에서는 현시점에서 3 월 FOMC 까지 총 50bp 금리 인상 후 11 월 FOMC 와 12 월 FOMC 를 통해 총 50bp 인하해 금리 상단이 4.5%가 될 것이라는 베팅도 유지하고 있는 실정. 따라서, 상기 두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, 최소 2 월 FOMC 전까지는 인플레이션, 고용지표를 제외한 소비, 생산, 수출 등 실물 경제 관련 지표들은 "Bad news is bad news" 성격을 띠 것이라는 전제하에 증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.

전일 국내 증시는 기존 예상과 달리 큰 변화를 주지 않았던 BOJ 회의 결과 속 시총 상위 대형주들을 중심으로한 기관의 순매도, 중국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들간 순환매 등으로 혼조세 마감(코스피 -0.5%, 코스닥 +0.3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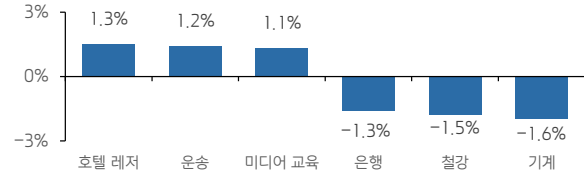
금일에는 한국 수출 실적과 밀접한 미국 소비 등 실물 경제 지표 부진, 블라드 총재의 매파 발언 등 미국발 악재를 반영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. 또한 차주부터는 국내 증시가 연휴로 인한 휴장 기간에 돌입하는 만큼, 금주 남은 2 거래일 동안 연휴 관망심리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. 이는 증시 전반적인 거래 감소 속 개별 종목들의 호가 스프레드를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, 벤치마크 플레이 혹은 개별 종목 플레이와 무관하게 남은 2 거래일 동안 보유종목들의 변동성 관리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 전망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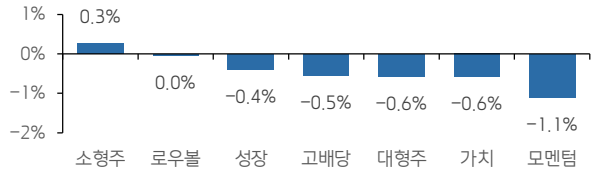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F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승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